

# 『金匱要略』의 百合病脈證治에 대한 연구

이윤천 · 고승욱 · 정현영\* · 신창환 · 임현택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A Study on the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Bulbus Lilli Syndrome*, Malaria Syndrome Characterized by Ulceration, and Poison of Yin-Yang' in Keumkyueyorak

Yun Cheon Lee, Seung Wuk Kho, Heon Young Jeong\*, Chang Hwan Shin, Hyun Taek Lim

Department of Oriental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Bulbus lilli syndrome* is characterizes by bitter taste, dark urine, indistint and weak pulse for rapture and unstable of mental. It is caused by not be recovered of vital energy after severe illness or mental stress. *Bulbus lilli syndrome* is similar to depression insomnia but not same. The name of *Bulbus lilli syndrome* is originated to be cured by *Lily Bulb*.

Key words : *Bulbus lilli syndrome*(百合), depression insomnia, psycho-neurosis, Malaria Syndrome characterized by ulceration(狐惑), Poison of Yin-Yang(陰陽毒), Keumkyueyorak(金匱要略)

### 서 론

『金匱要略·百合狐惑陰陽毒病脈證治第三』은 百合病·狐惑·陰陽毒의 辨證과 治療를 논술한 것으로 세 가지가 비록 각각의 特徵이 있으나 發病이 모두 外感熱病과 관련이 있고 또한 症狀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한편으로 습하여 論하였다. 百合病은 정신이 恍惚하고 寤고싶으나 누울 수 없고 걷고 싶으나 걸을 수 없고 식욕은 좋았다가 나빠지며 口苦하고 尿黃하며 脈象은 微數한 症狀이 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서, 『金匱要略·百合狐惑陰陽毒病脈證治第三』에 처음으로 명칭이 나온다. 百合病을 蔡<sup>1)</sup>는 히스테리 神經衰弱症으로 보았고, 葉橘泉<sup>2)</sup>은 病後의 神經精神衰弱으로 보았으며, 百合病의 原因은 傷寒熱病 뒤의 餘熱이 끝나지 않아서 邪熱이 心肺의 陰液을 소모시켜서 나타나기도 하며 또한 또한 바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鬱結되어 火가 되어 心肺의 陰을 손상시켜 발생하기도 한다. 百合病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여러 주석가들이 설명하고 있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현재 臨床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질환이면서도 百合病에 대한 認識의 不足과 百合病의 症狀이 鬱證·不寐·臍躁와 유사하기 때문에

임상에서 이를 세밀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誤治의 우려가 있다. 이에 『金匱要略·百合狐惑陰陽毒病脈證治第三』의 내용 가운데 百合病과 관련된 부분을 校勘하고 諸家의 註釋을 考察함으로써 原文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處方이 현재 臨床에서 活用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百合病의 診斷과 治療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하였다.

### 연구방법 및 재료

1. 原文은 1985년 成輔社에서 宋祠部郎中林億校正 明虞山人趙開美校刊으로 刊行된 『金匱要略方論』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작은 글자로 된 文章도 모두 收容하였다.
2. 懸吐는 蔡의 『金匱要略精解』를 참고하였다.
3. 校勘은 表1의 文獻을 參考하였다.
4. 본 論文에 인용한 註釋書는 表2와 같다.

### 연구내용

#### 제 1 절

##### 1. 원문

論曰 百合病者는 百脈이 一宗(1)하야 悉致其病也(2)라 意欲食이로대 復不能食하고 常默默(3)하며 欲臥不能臥하고 欲行不

\* 교신저자 : 정현영,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jikjae@wonkwang.ac.kr · Tel : 063-850-6808

· 접수 : 2004/02/25 · 수정 : 2004/04/02 · 채택 : 2004/5/17

能行하며 欲飲食<sup>2)</sup>호대 或有美<sup>4)</sup>時하고 或有不用聞食臭<sup>5)</sup>時<sup>3)</sup>하며 如寒無寒하고 如熱無熱하며 口苦 小便赤하야 諸藥이 不能治하고 得藥則劇吐利하야 如有神靈者<sup>6)</sup>하며 身形如和<sup>7)</sup>나 其脈微數이라 每溺時頭痛者는 六十日乃愈하고 若溺<sup>8)</sup>時頭不痛 淅然<sup>9)</sup>者는 四十日愈하고 若溺快然<sup>4)</sup><sup>10)</sup>하고 但頭眩者는 二十日愈라 其證이 或未病而預見하고 或病四五日而出하며 或病二十日 或一月에 微見<sup>5)</sup>者하니 各隨證治之라

표 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번호	編著者	書名	略稱	備考
1	魏荔洞	金匱要略方論本義	魏本	
2	尤怡	金匱要略心典	尤本	
3	唐宗海	金匱要略淺註補正	補正	
4	王謙	外臺秘要	外臺	
5	王叔和	脈經	脈經	
6	孫思邈	千金要方	千金	
7	李克光	金匱要略	李本	
8	俞橋	金匱要略方論	俞本	再引用
9	巢元方	諸病源候論	病源	

표 2. 選注書目

번호	著者	書名	備考
1	趙以德·周揚俊	金匱玉函經二注	
2	魏荔洞	金匱要略方論本義	
3	尤怡	金匱要略心典	
4	吳謙	醫宗金鑑·金匱要略注	
5	陳念祖	金匱要略淺注	
6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7	唐宗海	金匱要略淺註補正	
8	曹家達	金匱要略發微	

## 2. 교감

- 1) 默默: 「俞橋本」과 「補正」에는 “默然”으로 되어 있다.
- 2) 欲飲食: 「醫統」에는 “飲食”으로 되어 있다.
- 3) 或有不用聞食臭時: 「心典」에는 “或有不欲聞食臭時”로 되어 있다.
- 4) 若溺快然: 「本義」에는 “若溺快然”으로 되어 있다.
- 5) 微見者: 「諸病源候論·傷寒百病候」에는 “復見”으로 되어 있다.

## 3. 주석

- (1) 百脈一宗: 百脈一宗은 人體의 血脈은 나누면 百이 되나 모두 心肺가 주재하는 것으로 곧 하나이니나 人體의 모든 脈은 같은 根源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sup>3)</sup>.
- (2) 悉致其病: 百合病이 全身에 영향을 주어 全身의 經脈이 모두 被害를 입어 病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sup>4)</sup>. (悉: 詳盡, 다할 실.)
- (3) 默默(묵묵): 입을 다물고 말을 아니하는 모양.
- (4) 美: 甘也, 맛있을 미
- (5) 臭: 凡氣之總名, 냄새 취

1)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出版社, 大邱, 1982, p35.  
 2) 中西病名對照表: 葉橘泉, 千頃堂書局, 上海, 1955, p19  
 3) 李克光: 百合一宗은 謂人體血脈分之可百이나 但同歸心肺所主則一이라 … 卽指人體百脈이 同出一源이라  
 4) 李克光: 指百合病影響整體하야 全身經脈都受累而致病이라

- (6) 如有神靈者: 百合病 환자가 정신상태가 恍惚하고 不安定한 症狀를 형성한 것인데 마치 神靈이 造化를 부려서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다<sup>5)</sup>.
- (7) 身形如和: 和는 和順·安和의 뜻으로서 無病의 뜻이다. 이는 환자가 外形上 뚜렷한 病態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sup>6)</sup>.
- (8) 溺: 小便, 오줌 요
- (9) 淅然(석연): 바람을 싫어하고 추위에 떠는 모습을 형용한다<sup>7)</sup>. (淅: 雨聲, 빗소리 석)
- (10) 快然(쾌연): 상쾌한 모양.

## 4. 국역

百合病은 人體의 모든 脈은 根源이 같아서 全身의 모든 經脈이 病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음식을 먹고자 하나 또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항상 입을 다물고 말을 아니하며; 잠을 자려고 하나 자지 못하고 움직이려고 하나 움직일 수 없으며; 飲食을 먹고자 하나 어떤 때는 음식을 맛있게 느끼는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음식냄새를 맡을 수 없는 때도 있으며; 惡寒이 있는 것 같으나 惡寒이 없고 發熱이 있는 것 같으나 發熱이 없으며; 口苦하고 小便赤하야 온갖 약으로 治療할 수 없고 藥을 服用하면 심하게 嘔吐와 泄瀉를 하여서 마치 鬼神이 造化를 부리는 듯 하며 걸음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듯 하지만 脈은 微數하다. 小便을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픈 사람은 六十日이면 낫고; 만약 小便을 볼 때 머리가 아프지 않고 오싹오싹 추워하는 사람은 四十日이면 낫고; 만약 小便은 시원하게 보는데 단지 머리만 어지러운 사람은 二十日이면 낫는다. 그 증상이 아직 發病하지 않았는데 미리 나타나기도 하고 或은 發病된지 四日이나 五日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며 或은 發病된지 二十日 또는 一月만에 약간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각각 그 病證에 따라서 치료한다.

## 5. 고찰

본 條는 百合病의 病因·症狀·預候와 治療原則을 논하였다. ‘百合’이란 病名의 由來에 관하여 諸家의 주장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主藥으로 命名되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魏荔洞은 『金匱要略方論本義』에 “百合病에 百合을 主藥으로 삼았고 藥名으로써 病을 命名하였다.”<sup>8)</sup>고 하여, 百合이 百合病을 치료하는 주된 藥物이기 때문에 藥物名으로써 病名을 삼은 경우이다. 둘째, 病機로써 命名한 것으로서, 原文에 “百合病者 百脈一宗 悉致其病也”라고 하였듯이 人體의 百脈은 같은 하나의 根源에서 나오니 根源이 病들면 百脈이 모두 병들게 되므로 百合病이라 하였다. 尤怡는 “百脈一宗은 나누면 百脈이 되고 합하면 一宗이 되니 모두 病이 되면 病들지 않는 것은 없다.”<sup>9)</sup>고 하여 病機의 측면에서 病名을 해석하였다. 셋째, 病因으로써 命名한 것

5) 李克光: 形容百合病人神志恍惚·精神不定的症狀이 好像有神靈作祟의 하야 捉摸不定이라  
 6) 陳紀藩: 和는 和順 安和니 引申爲無病이라 此는 言患者看上去似無明顯病態라  
 7) 李克光: 形容怕風寒慄之意라  
 8) 魏荔洞: 此百合病以百合爲主藥하고 而且以藥名病也夫인저  
 9) 尤怡: 百脈一宗者는 分之則爲百脈하고 合之則爲一宗하니 悉致其病 則無之非病矣라

으로서, 日本人 飯田鼎은 『金匱要略方論考證』에 “百合을 按察해 보면 房室이 過度한 것을 말하니 그 原因을 취하여 病을 命名한 것이다. 藥의 이름이 百合인 것은 우연일 뿐이다.”<sup>10)</sup>고 하여 百合病은 곧 房室이 過度하여 생긴 것으로 ‘百合’ 두 글자는 藥物인 百合의 이름이 아니라 房室이 過度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陳<sup>11)</sup>은 첫 번째의 관점은 확실히 傍證할 만한 점이 있는데 가령 仲景이 『傷寒論』 중에 “桂枝證”, “柴胡證” 등처럼 方藥으로 명명한 것이다.

두 번째의 관점 역시 이치가 없지는 않으나 원문의 “...者...也”의 문장형식으로 보면 긍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뒤의 “百脈一宗 悉致其病也”는 앞의 百合病을 해석한 것이다. 이른바 百合病은 곧 百脈이 모두 병든 질환이다. 文章型식이나 病機로 보면 따를 만 하다. 위에서 서술한 방법은 각각 이치가 있어서 참고할 만 하다. 다만 세 번째의 방법은 단지 地黃의 효과에 따라서 百合病의 病因·病名을 밝힌 것은 牽強附會한 점이 없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百合病의 原因을 『金匱要略』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百合病의 原因에 대한 역대 醫家들의 주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傷寒病後에 생긴 것으로서 孫思邈은 『外臺秘要』에 “모두 傷寒虛勞로 因하여 大病이 끝난 뒤에 平常으로 回復되지 않아 變하여 病이 된다.”<sup>12)</sup>고 하여 傷寒虛勞大病의 뒤에 인체의 正氣가 虛하고 營衛氣血이 失調되어 나머지 邪氣가 머물러 모든 脈이 調和되지 않고 변하여 이 병이 생기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情志所傷한 것으로서, 吳謙은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에 “或은 平素에 생각이 많아 끊이지 않고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或은 우연히 놀라고 의심이 일어나며 갑자기 어떤 境遇에 처하여서 形과 神이 모두 病이 되므로 이와 같은 證이 있게 된다.”<sup>13)</sup>고 하였는데 趙以德·曹穎甫 또한 이와 비슷한 논술을 하였다. 셋째, 誤治로 생긴 것으로서, 吳綬는 『重訂傷寒蘊要方脈藥性匯全』에 “무릇 傷寒을 發汗·吐·下한 뒤에 元氣가 虛勞하여 대개 이 證으로 변한다.”<sup>14)</sup>고 하였다. 넷째, 房勞로 생기는 것으로서, 日本人 飯田鼎은 『金匱要略方論考證』에 “무릇 百合病은 ... 房勞가 過度한 것으로 생긴다.”<sup>15)</sup>고 하였다. 비록 여러 가지 說이 분분하지만 『千金方』<sup>16)</sup>, 『外臺秘要』<sup>17)</sup>, 『太平聖惠方』<sup>18)</sup>, 『類證活人書』<sup>19)</sup>, 『聖濟總錄』<sup>20)</sup>, 『普濟方』<sup>21)</sup>, 『證治準繩』<sup>22)</sup>과 같은 漢以後의 重要한 著作에

모두 百合病을 傷寒百合 또는 百合傷寒이라 하여 傷寒門類로 分類한 것을 보면 傷寒으로 발생하거나 傷寒 후에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百合病의 原因은 주로 傷寒外感熱病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太平聖惠方』에 “百合病 또한 傷寒으로 시작되어 문득 이 병이 된 것이 있고, 혹은 질병이 오래되어 비로소 이 證으로 변한 것이 있다.”<sup>23)</sup>고 하여 情志不遂와 誤治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였으나 傷寒外感熱病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 思料된다.

百合病의 病機에 대하여 趙以德은 『金匱方論衍義』에 “무릇 脈은 血의 府이다. ... 手心主에 귀납된다. 手心主는 血과 脈을 주재하니 만약 火가 넘치면 熱이 되고 熱이 쌓여 흠어지지 않으면 모이고 모이면 毒이 생겨서 血을 손상시키고 熱毒이 脈으로 흘러 들어가니 根本이 母氣의 淫邪로 인한 것이므로 百脈이 이를 따라 모두 病이 된다.”<sup>24)</sup>고 하여 心·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魏荔澗은 『金匱要略方論本義』에 “百合病은 肺病이다. 肺는 氣를 主宰하니 肺가 病들면 氣가 病들고 氣가 病들면 脈이 병든다.”<sup>25)</sup>고 하여 肺·氣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原文에 “百合病者 百脈一宗 悉致其病也”라고 밝혔듯이 百合病의 病機는 脈에 관련된 것이다. 脈과 관련하여 『素問·宣明五氣篇』에 “心主脈”이라 하였고, 『素問·經脈別論』에 “肺朝百脈”이라 하였으니 心은 血脈을 주재하고 肺는 百脈이 朝會하여 人體의 脈은 心·肺가 統括하므로 각종의 病因이 心·肺에 손상을 끼치면 百脈이 함께 병들기 때문에 百合病의 病機는 心과 肺 둘 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程門雪은 “百合病은 熱이 肺陰을 손상시켜 腦髓에 영향을 미쳐 膀胱에 나타나는 것이다.”<sup>26)</sup>고 하여 腦病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하여 陳紀藩은 百合病 환자의 몸은 자주 津虧血燥하고 元氣가 困乏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陰液滋潤·濡養機能의 不足은 氣의 각종 機能의 장애를 發生하여 氣血이 不和하게 되어 藏府經絡이 濡養되지 못하게 이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특히 心이 받는 손상이 가장 크다. 心神은 全身의 각종 生理機能의 協助와 平衡에 영향을 주어 五臟六腑의 大主가 되며 “主不明則十二官危”하므로 心이 濡養을 받지 못하면 心神이 맡은 職分을 잃어 기타의 藏府와 經脈이 非正常이 되어 鬼神이 造化를 부리는 것과 같은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고<sup>27)</sup> 하였으니 참고할 만 하다.

百合病의 症狀에 대하여 曹家達은 『金匱要略發微』에 “肺陰이 濡養하지 않으면 濁氣는 下降하지 않고 清氣는 上升하지 못하여 모든 藏의 氣가 實하여 갑자기 停滯하게 되니 이리므로 胃氣가 갑자기 停滯되면 밥을 먹으려고 하나 먹을 수 없고; 意慾이 떨어져 모든 일을 그만두므로 항상 말이 없이 沈默하며; 또

10) 飯田鼎: 按간대 百合은 乃房室過度之謂니 取其因以名其病이라 與其藥名百合者는 偶然耳라  
11) 金匱要略: 陳紀藩 主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2. p120.  
12) 孫思邈: 皆因傷寒虛勞하여 大病已後不復하여 變成斯病이라  
13) 吳謙: 或平素多思不斷하고 情志不遂하며 或偶觸驚疑하며 卒臨景遇하여 因而形神俱病 故是 有如是之現證也라  
14) 吳綬: 大抵傷寒汗吐下之後에 元氣虛勞하여 多變此證이라  
15) 飯田鼎: 蓋百合病者는 ... 房室過度之所致라  
16) 孫思邈 著·李景榮 등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17) 王焘: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18) 王懷隱 등: 太平聖惠方, 翰成社, 서울, 1978.  
19)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南山堂, 서울, 1987.  
20) 趙佶: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21) 朱棣 撰: 普濟方, 大星文化社, 서울, 1995.  
22) 王肯堂: 證治準繩,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23) 王懷隱 등: 其病亦有始中傷寒하여 便成斯疾하며 或患經多日하여 方始變爲此證이라  
24) 趙以德: 蓋脈者는 血之府라 ... 歸于手心主하고 手心主者는 主血主脈하니 若火淫則熱하고 熱蓄不散則積하고 積則毒生而傷其血하고 熱毒之血流于脈하여 本因母氣之淫邪하니 是故로 百脈一宗하여 悉致其病也라  
25) 魏荔澗: 百合病者는 肺病也라 肺主氣하니 肺病則氣病하고 氣病則脈病이라  
26) 程門雪: 百合一病은 熱傷肺陰하여 延及腦髓하고 徵于膀胱也라  
27) 金匱要略: 陳紀藩 主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120, 121, 2002.

肺陰이 下降하지 않고 膽火가 上逆하여 이로 因하여 病이 煩躁가 되므로 눕고자 하나 누울 수 없으며 움직이려고 하나 움직일 수 없으며; 肺陰은 비록 損傷되었으나 胃氣는 여전히 있으므로 飲食이 맛있을 때도 있으나 그러나 筋脈이 懈弛하여 動作할 수 없고 中脘이 쉽게 停滯되므로 간혹 음식 냄새를 맡기 싫어하는 때도 있으며; 肺는 皮毛를 주재하니 肺陰이 傷하면 衛陽이 外를 保衛하지 못하여 약간 惡風을 느끼게 되므로 추운 것 같으나 寒이 없으며; 津液이 皮毛를 濡養하지 못하여 때로 乾燥하여 고통스러우므로 熱이 있는 것 같으나 熱은 없으며; 口苦는 肺陰이 中脘을 滋漑하지 못하여 膽胃가 燥한 것이며; 小便赤은 水의 上源이 不足하여 下焦에 熱이 鬱한 것이다.”<sup>28)</sup>고 하였다.

百合病의 症狀를 尤怡는 『金匱要略心典』에 “모두 확실하지 않게 오는 것이어서 믿을 만한 징조는 아니나 오직 口苦·小便赤·脈微數만이 곧 그 恒常된 徵候이다.”<sup>29)</sup>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熱邪가 흩어져서 經脈에 하나로 모이지 않아 邪氣가 游走함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그 病 또한 去來가 일정치 않다.”<sup>30)</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原文에 “如有神靈者”라 하여 百合病의 症狀이 매우 복잡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李는 증상으로 볼 때 百合病은 현대의 精神神經症(psychoneurosis)에 해당된 다<sup>31)</sup>고 하였다.

百合病의 症狀는 鬱證·不寐·臟躁와 유사하나 같지는 않다. 鬱證에 脇痛·脹痛·噎氣·口苦·口乾·便秘·尿赤·煩躁易怒·胸吸脹痛·噎氣頻頻 등의 증상이 있어서 百合病과 유사하나 百合病이 陰虛內熱로 인한 것인 반면에 鬱證은 實火로 인한 것이므로 구별이 있다. 不寐는 종종 정상적으로 睡眠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며 혹은 자다가 쉽게 깨는 증상으로서 百合病의 “欲臥不能臥”와 유사하나 不寐는 百合病의 不寐 이외의 기타 症狀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차이가 있다. 臟躁의 주요 특징은 “善悲欲哭”인데 百合病에서 나타나는 口苦·小便赤 등과 같은 증상이 없다<sup>32)</sup>.

百合病의 預後를 小便과 연관시켰는데 소변볼 때마다 頭痛이 있으면 60일이 지나면 낫고, 頭痛이 있지는 않으나 오싹오싹 하면 40일이 지나면 낫고, 소변은 시원하게 보는데 단지 머리만 어지러우면 20일이 지나면 낫는다고 하였다. 唐宗海가 “症狀의 淺深을 辨別함에 이르러서는 첫째 頭痛이라 하고 둘째 頭漸漸然이라 하고 셋째 頭眩이라 하였고, 陳修園의 『金匱要略淺註』에는 太陽經으로 論하였으나 그러나 原文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腦髓를 가리켜 말하였다. 그러므로 頭痛이 있는 것은 病이 深部

에 있고 頭痛이 없는 것은 病이 淺部에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太陽經 頭痛은 表部에 있는 것이지 深部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무릇 肺의 氣管은 위로 腦에 들어가 鼻에 到達하여 가장 곧장 다다르니 腦髓에 依據하여 病의 淺深을 辨別하였다.”<sup>33)</sup>고 하였듯이 대부분의 註釋家들은 肺·膀胱과 腦의 측면으로써 理解하였으며, 曹家達은 “소변볼 때 頭痛이 있는 것은 水液이 아래로 새어나가고 鬱結된 熱이 腦로 上衝된 것이고, 衝激이 甚하지 않으면 太陽穴의 經脈이 躁動하여 단지 漸漸然한 것만 나타나고 아픈 것 같으나 아프지 않고, 小便이 시원하게 나오나 단지 浮越된 陽이 위를 가려서 頭眩하면 그 病이 더욱 輕한 것이다.”<sup>34)</sup>고 하였으니 분장 가운데 六十·四十·二十 등의 日數는 단지 病情의 長短을 대략적으로 말한 것으로 구애될 필요가 없다.

## 제 2 절

### 1. 원문

百合病의 發汗後者는 百合知母湯主之<sup>1)</sup>라 百合知母湯方 百合七枚(擘(1)) 知母三兩(切(2)) 右先以水洗(3)百合하고 漬(4)一宿(5)하야 當白沫出하고 去其水하며 更(6)以泉水二升하고 煎(7)取一升하야 去滓(8)하며 別以泉水二升<sup>2)</sup>으로 煎知母하야 取一升하야 去滓하며 後合和하야 煎取一升五合이라 分溫再服이라.

### 2. 교감

- 1) 百合病 發汗後者 百合知母湯主之 : 『千金·卷第十·百合第三』에는 “治百合病已經發汗之後更發者 百合知母湯方”으로 되어 있다.
- 2) 去滓 別以泉水二升 : 『外臺·卷二』에는 “去滓 置之一處 別以泉水二升”으로 되어 있다.

### 3. 주해

- (1) 擘 : 藥物을 달이기 전에 우선 손끝으로 찢어내고, 藥味를 끓여서 나오기 쉽도록 하는 것.(擘·分擘, 나눌 벽)
- (2) 切 : 治劑이라고도 함. 藥材의 雜物을 除去하고, 藥物을 切削하는 技術을 총괄하여 말한다.(切·割也, 벨 절)
- (3) 洗 : 물로 藥物의 表面에 附着한 흙이나 그 외의 不純物을 씻어 내는 것(洗·滌也, 씻을 세)
- (4) 漬 : 泡와 같음. 藥물을 물에 담가두어 불어나게 하는 것.(漬·浸漬, 담글 지)
- (5) 一宿(일숙) : 하룻밤을 잠.
- (6) 更 : 易야, 바꿀 경.
- (7) 煎 : 湯劑의 발칭으로 藥物을 물에 넣고 끓여내는 것.(煎·火去汁, 조릴 절)
- (8) 滓 : 澱也, 찌꺼 재.

28) 曹家達: 肺陰不濡 則濁氣不降하고 清氣不升하야 諸藏之氣가 實爲頓滯하니 是故로 胃氣頓滯則飲食而不能食이오 意興蕭索이면 百事俱廢 故로 常默然이오 且肺陰不降하고 膽火上逆하야 因病煩躁 故로 欲臥不能臥 欲行不能行이오 肺陰雖傷이나 胃氣尙存 故로 飲食或有美時하며 然以筋脈懈弛하야 不能動作하고 中脘易於停頓 故로 或有不欲聞食臭時오 肺主皮毛하니 肺陰傷則衛陽不能衛外하야 微覺惡風 故로 似寒無寒하며 津液不濡皮毛면 時苦乾燥 故로 如熱無熱이오 口苦者는 肺陰不能滋漑中脘而膽胃燥也오 小便赤者는 水之上源不足而下焦熱鬱也라

29) 尤怡: 全是恍惚去來하야 不可爲惡之象이니 惟口苦 小便赤 脈微數 則其常也라

30) 尤怡: 熱邪散漫하고 未統於經하야 其氣游走無定 故로 其病亦去來無定이라

31) 金匱要略: 李克光 主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p88

32) 中醫辭海·上: 吳大鈞 總編,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p1132

33) 唐宗海: 至辨症之淺深하야는 一則曰頭痛이오 再則曰頭漸漸然이오 三則曰頭眩이라하고 淺註엔 就太陽經論이나 然이나 玩原文컨대 殆指腦髓而言이라 故로 痛者病深하고 不痛者病淺하니 故로 太陽之頭痛在表오 不得爲深也라 蓋肺之氣管은 上入腦而達於鼻路最直捷하니 據腦髓以辨病之淺深이라

34) 曹家達: 溺時頭痛者는 水液下洩하고 鬱熱上衝於腦也오 衝激不甚하면 則太陽穴經脈躁動而但見漸漸然하고 似痛非痛이오 小便暢適이나 但有浮陽上冒而病頭眩하면 則其病更輕이라

4. 국역

百合病의 發汗시킨 뒤의 사람은 百合知母湯으로 主治한다. 百合知母湯方 百合 七枚(조갠 것) 知母 三兩(꺾은 것) 위의 약물을 먼저 물로 百合을 씻어서 하룻밤 동안 담갔다가 白沫이 나오면 물을 따라내고 枳實 二升을 넣고 一升이 되게 줄이고 찌꺼기를 없애고; 별도로 枳實 二升으로 知母를 달여서 一升이 되도록 줄여서 찌꺼기를 없앤 뒤에 百合을 졸인 것과 합하여 一升五合이 되도록 줄여서 두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服用한다.

5. 고찰

본 條는 百合病을 發汗시켜서 잘못 치료한 것의 治法을 논하였다. 百合病의 病機는 주로 心肺陰虛內熱로 인한 것이지만 外邪가 表에 침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如寒無寒 如熱無熱” 등의 밖으로 나타나는 症狀에 迷惑되어 外感表實證으로 잘못 알고서 辛溫發汗을 하여 發汗시키다하면 陰이 더욱 손상되어 虛熱이 더욱 심해져서 第 1條에 서술한 百合病의 症狀 외에도 오히려 心煩·口渴 등의 증상이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治法은 養陰清熱하고 補虛潤燥하는데 百合知母湯을 써서 主治하였다.

6. 방해

百合은 百合病을 치료하는 主藥으로서 清心潤肺하고 益氣安神하며; 知母는 清熱滋陰을 잘할 뿐 아니라 또한 除煩止渴할 수 있으며; 泉水는 清熱利尿하여 熱을 이끌고 下行한다. 세 가지가 합하여 모두 養陰清熱하고 補虛潤燥의 효과가 있다.

7. 임상응용

朱<sup>35)</sup>는 本方에 牡丹皮·當歸·白芍藥·川棟子·甘草를 加味하여 聚證을, 甘麥大棗湯을 合方하여 嘈雜을, 安神定志丸을 合方하여 驚恐을 치료하였으며; 關<sup>36)</sup> 등은 人蔘溫膽湯을 合方하여 客忤瘧을 치료하였으며; 張<sup>37)</sup>은 本方에 滑石·金銀花·連翹·白芍藥·香薷를 加味하여 癔病性癱瘓(hysterical paralysis)을 치료하였다.

제 3 절

1. 원문

百合病의 下之後者는 滑石代赭湯主之<sup>1)</sup>라 滑石代赭湯方 百合七枚(擘) 滑石三兩(碎(1)綿(2)麥(3)) 代赭石(如彈子大一枚碎綿麥) 右先以水洗百合하고 漬一宿하야 當白沫出하고 去其水하며 更以泉水二升하야 煎取一升하고 去滓<sup>2)</sup>하며 別以泉水二升으로 煎滑石代赭하야 取一升하고 去滓하며 後合和하야 重煎取一升五合하야 分溫服<sup>3)</sup>이라

2. 교감

1) 『千金·卷十』에는 “治百合病已經下之後更發者…”로, 『外臺·卷二』에는 “又下之已更發者 百合滑石代赭湯主之方”으로 되어 있다.

2) 『外臺·卷二』에는 “去滓” 뒤에 “置一宿” 三字이 있다.

3) 『外臺·卷二』에는 “分溫服”이 “分再服”으로 되어 있다.

3. 註釋

- (1) 碎: 散也, 갈 썰.
- (2) 綿: 木綿, 무명 면.
- (3) 麥: 包也, 쌀 과.

4. 국역

百合病을 瀉下시켜 잘못 치료한 사람에게는 滑石代赭湯으로 主治한다. 滑石代赭湯方 百合 七枚(조갠 것) 滑石 三兩(갈아서 무명에 싼다) 代赭石(彈子大 크기의 一枚를 갈아서 무명에 싼다) 위의 약물을 먼저 百合을 물로 씻어서 하룻밤 동안 白沫이 나오도록 담갔다 물을 따라내고 새로이 枳實 二升을 넣고 一升이 되게 줄여서 찌꺼기를 없앤다. 별도로 枳實 二升에 滑石과 代赭石을 一升이 되게 줄여서 찌꺼기를 없애고 百合을 졸인 것과 합하여 다시 一升五合이 되도록 줄여서 두 번에 나누어서 따뜻하게 服用한다.

5. 고찰

본 條는 百合病을 下法을 사용하여 잘못 치료한 것의 治法을 논하였다. 앞에서 이미 서술하였듯이 百合病은 주로 心肺陰虛內熱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攻下法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데 만약 “意慾食復不能食”, “口苦 小便赤” 등의 症狀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裏實熱證으로 보아 下法을 사용하여 “虛虛”의 警戒을 범하는 것이다. 百合病을 下法을 사용하여 잘못 치료하면 한편으로는 津液이 더욱 손상되어 內熱이 加重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苦寒한 攻下시키는 약물이 胃의 氣陰을 손상시켜 和降이 失常된다. 따라서 1條에 서술된 百合病의 症狀 외에 또한 小便短赤而澀, 嘔吐, 呃逆, 口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養陰清熱하고 和胃降逆하기 위하여 滑石代赭湯을 사용하였다.

6. 방해

本方은 百合으로 清心潤肺하여 本病을 主治하였고, 代赭石으로 降逆和胃하였고, 滑石과 泉水로 清熱利尿하였는데, 이 네 가지를 配伍하여 清養心肺하고 平降胃氣하여 熱이 小便을 따라 아래로 빠져나가게 하였다.

7. 임상응용

현대의 치험예로는 『趙錫武醫療經驗』<sup>38)</sup>에 長冷·胸悶·腕痛·腹痛을 治療한 예가 보고되었다.

제 4 절

1. 원문

百合病의 吐之後者는 用後方(1)主之<sup>1)</sup>라 百合鷄子湯方 百合七枚(擘) 鷄子黃(一枚) 右先以水洗百合하고 漬一宿하야 當白沫出

35) 朱斌順 : 百合知母湯治驗三則, 湖南醫學雜誌, 1983. vol3, p43  
 36) 閻信 等 : 百合知母湯加味治驗介紹, 甘肅醫藥, 1984. vol3, p42  
 37) 張河占 : 重用百合治療癔病性癱瘓, 新疆中醫藥, 1986, vol3, p63

38) 中醫研究院西苑醫院 : 趙錫武醫療經驗, 人民衛生出版社, 1980 vol4, p73

고 出去其水하고 更以泉水二升하여 煎取一升하고 去滓하며 內(2)鷄子黃하고 攪勻(3)하여 煎五分이라 溫服이라

2. 교감

- 1) 『千金·卷十』에는 “治合病已經吐之後 更發者 百合鷄子湯方”으로, 『外臺·卷二』에는 “又吐之已更發者 百合鷄子湯主之方”으로 되어 있다.

3. 주석

- (1) 後方: 百合鷄子湯을 가리킨다.
- (2) 內: 入也, 들일 남
- (3) 攪勻(교균): 고루 잘 섞음.

4. 국역

百合病을 吐法을 사용하여 잘못 치료한 사람은 뒤의 處方으로 主治한다. 百合鷄子湯方 百合 七枚(조갰 것) 鷄子黃 一枚 먼저 물로 百合을 씻어서 하룻밤 동안 白沫이 나오도록 담갔다가 물을 따라내고 薑末 二升을 넣고 一升이 되도록 줄여서 찌꺼기를 없애고 鷄子黃을 넣고 고루 섞어서 五分이 되도록 줄여서 따뜻하게 복용한다.

5. 고찰

본 條는 百合病을 吐法을 사용하여 잘못 치료한 것의 治法을 논술하였다. 百合病의 心肺陰虛內熱한 것이므로 吐法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으나 환자가 “不用聞食臭”한 것으로 인하여 痰涎이 壅滯한 것이나 혹은 宿食이 上脘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吐法을 사용하여 虛證을 實證으로 誤認하여 치료한 것이다. 그 결과 陰液이 더욱 손상되고 燥熱은 더욱 심하여 肺胃의 和降하는 氣가 어지럽혀져 제 1조에 있는 모든 증상 외에도 또한 煩躁不安, 胃中不和, 嘔雜, 乾嘔 등의 증상이 더해진다. 이에 대하여 滋養肺胃하고 潤燥降逆하기 위하여 百合鷄子湯을 사용하여 치료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三條는 모두 百合病을 汗·吐·下하여 誤治한 뒤에 나타나는 비교적 輕微한 變症을 치료한 것으로서 本病을 爲主로 하고 變症을 겸해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百合을 主藥으로 삼았고, 薑末로 약을 달이고 또한 誤治를 救濟하는 藥品을 넣어서 變症에 맞게 한 것이다.

6. 방해

百合은 清養心肺하고 益氣潤燥하며; 鷄子黃은 滋陰養血하고 和胃安神하며; 泉水는 清熱利小便하니 모두 養陰清熱하고 和胃潤燥의 효능이 있다.

7. 임상응용

현대의 臨床例로서는 肝昏睡(hepatic coma)를 치료한<sup>39)</sup> 例가 있다.

39) 山西省中農研究所肝病科: 中西醫結合治療肝硬變肝昏迷40例經驗小結, 新西醫學雜誌, 1974, vol2 p13

제 5 절

1. 원문

百合病1)에 不經吐下發汗2)하고 病形如初者3)(1)는 百合地黃湯主之라 百合地黃湯方 百合 七枚(擘) 生地黃汁(一升) 右先以水洗百合하고 漬一宿하여 當白沫出하고 去其水하고 更以泉水二升하여 煎取一升하고 去滓하며 內地黃汁하여 煎取一升五合이라 分溫再服하며 中病勿更服(2)이라 大便當如漆(3)이라

2. 교감

- 1) 百合病: 『千金·卷十』에는 “百合病始”로 되어 있다.
- 2) 不經吐下發汗: 『千金·卷十』에는 “發汗吐下”로, 『外臺·卷二』에는 “不吐不下不發汗”으로 되어 있다.
- 3) 病形如初者: 『外臺·卷二』에는 “病形如初”로 되어 있다.

3. 주석

- (1) 病形如初者: 病의 症狀이 제 1條에 논술한 것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 (2) 勿更服: 다시 服用할 필요가 없다.
- (3) 大便當如漆: 漆은 黑色이니 大便色黑을 가리킨다.

4. 국역

百合病을 吐法과 瀉下와 發汗을 하지 않았는데도 病의 증상이 제 1條와 같은 사람은 百合地黃湯으로 主治한다. 百合地黃湯方 百合 七枚(조갰 것) 生地黃汁(一升) 위의 약물을 먼저 물로 百合을 씻어서 하룻밤 동안 白沫이 나오도록 담갔다가 물을 따라내고 薑末 二升을 넣고 一升이 되도록 줄여서 찌꺼기를 없애고 地黃汁을 넣고서 一升五合이 되도록 줄여서 두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服用한다. 病에 맞으면 다시 服用하지 않는다. 服用하면 大便이 옷처럼 검다.

5. 고찰

본 條는 百合病의 正治法을 논하였다. 제 2·3·4條는 百合病을 汗·吐·下法을 사용하여 잘못 치료한 것을 논하였으나, 본 條는 명확히 지적하였듯이 吐·下·汗法으로써 잘못 치료한 것이 아닌 典型的인 百合病의 治療을 논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百合病의 病機는 주로 心肺陰虛內熱이므로 治法은 清養·滋陰이 원칙이 된다. 百合地黃湯은 潤養心肺와 涼血清熱과 益氣安神의 효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百合病을 正治하는 처방이 된다.

6. 방해

본 方은 百合·地黃으로 造成되고 薑末을 사용하여 달여서 복용하였다. 『神農本草經』에 百合은 “味甘平 主邪氣腹脹心痛利大小便 補中益氣”라 기재되어 있고, 『本草綱目』에는 安心·定膽·益志·養五臟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百合은 補虛滋養할 뿐만 아니라 또한 鎮靜·祛邪할 수 있어 작용이 매우 넓어서 體虛·機能紊亂 나타나는 증상이 복잡한 百合病에 대하여 虛한 것을 補할 뿐 아니라 紊亂한 것을 整理할 수 있으므로 百合病을 치료

하는 主藥이 되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 地黃은 滋養하는 최고의 약물로서 中土를 補하고 藏府를 滋養할 수 있어 滋養의 작용의 特徵을 『本經逢源』과 같은 곳에서는 “有潤燥之功 而無滋膩之患也”라 하였다. 汪紀石이 『理虛元覽』에 지적하였듯이 地黃은 補虛劑에 들어가면 “則肺部喜其潤 心部喜其清 腎部喜其滋 肝部喜其和 脾部喜其甘緩”이라 하였다. 이 藥은 全身을 濡養하여 氣血이 圓滑이 流通되어 藏府經脈의 機能을 正常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泉水는 利小便을 하여 熱을 내릴 수 있으니 이로써 煎湯하면 養陰清熱의 효과를 增大시킨다.

위에서 보았듯이 本方은 清·輕·平·潤의 특징을 갖고 있어 滋津液·益元氣할 수 있어 五藏의 元氣가 通暢하여 內熱이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빼내어 失調된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킨다. 임상에서 증명되었듯이 본방은 이러한 病證의 類에 확실히 훌륭한 처방이다. 처방의 끝에 “中病勿更服”이라 한 것은 地黃의 성질이 寒潤하기 때문에 많이 복용하면 泄瀉를 할 수 있고, 또 처방 가운데 地黃汁을 매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난 뒤에 用量이 過多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一說로는 百合病 治療 후에 처음 효과가 나타날 때 효과가 있다고 즉시 服藥을 멈추는 것은 옳지 않고 이 處方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으나 다만 生地黃汁을 성질이 寒하여 쉽게 泄瀉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상에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정해야 한다. 또 “大便當如漆”이라 하였는데 이는 地黃汁을 복용한 뒤에 大便이 黑色을 띠 수 있으나 服藥을 멈추면 바로 消失된다. 또한 “熱除之驗”이라 이해하는 주석가도 있으니 참고할 만 하다<sup>40)</sup>.

7. 임상응용

현대에 白<sup>41)</sup>은 本方에 知母·麥門冬·龍骨·牡蠣·磁石·石菖蒲·茯神을 加味하여 更年期 擾鬱症을 치료하였고, 楊<sup>42)</sup>은 酸棗仁·遠志·茯苓·龍骨·知母·鬱金·竹茹·甘草를 가미하여 癔病(hysterism)을 치료하였고, 陶<sup>43)</sup>는 本方에 阿膠·茅根·黃芩·知母를 加味하여 鼻衄을 치료하였으며, 田<sup>44)</sup>은 丹參·地骨皮를 加味하여 經斷前後의 諸證을 치료하였고, 武<sup>45)</sup>는 酸棗仁·知母·茯神·當歸·白芍藥·柏子仁·合歡花·梔子·桑椹子·甘草를 가미하여 夢遊病(somnambulism)을 치료하였고, 胡<sup>46)</sup>는 麥門冬·酸棗仁·遠志를 加味하여 輕微한 腦機能·失調·綜合證을 치료하였고, 任<sup>47)</sup>은 麥門冬·烏藥·五味子·葶藶子를 加味하여 喘證을 치료하였고, 麥門冬·烏藥·丹參·赤芍藥을 加味하여 胸痺를 치료하였다.

40) 陳紀藩 主編：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人民衛生出版社，北京，2000. p126  
 41) 白國生：百合地黃湯加味治療更年期擾鬱症20例，江蘇中醫，1995, vol8, p13  
 42) 楊鐘發：加味百合地黃湯治療癔病45例，陝西中醫，1980, vol4, p19  
 43) 陶必賢：古方百合地黃湯·百合鷄子湯加味治療鼻衄的臨床報告，貴陽中醫學院學報，1995년, vol3, p35  
 44) 田樂華：百合地黃湯加味治療經斷前後諸症167例，中醫臨床與保健，1992, vol2, p18  
 45) 武明甫：百合地黃湯治療夜遊症，陝西中醫，1986, vol6, p172  
 46) 胡義保：百合地黃湯加味治愈輕微腦功能失調綜合徵，四川中醫，1989, vol10, p13  
 47) 任美華：加味百合地黃湯治愈二則，湖南中醫雜誌，1990, vol6, p31

제 6 절

1. 원문

百合病이 一月1)不解하고 變成渴者는 百合洗方主之라 百合洗方 右以百合一升을 以水一斗로 漬之一宿하고 以洗身하며 洗已면 食煮餅(1)호대 勿以鹽豉(2)也라

2. 교감

1) 一月：『千金·卷十』에는 “經月”로 되어 있다.

2. 주석

- (1) 煮餅(자병)：餅은 古代에는 밀가루 음식을 통칭하였다. 煮餅은 『活人書』에 “卽淡熟麵條也”라 하였다.
- (2) 鹽豉：소금과 豆豉(콩을 발효시켜 만든 말린 청국과 비슷한 식품)로서 煮餅을 먹을 때 맛을 내기 위한 것이다.

3. 국역

百合病이 一箇月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變하여 渴症이 된 사람은 百合洗方으로 主治한다. 百合洗方 百合 一升을 물 一斗에 하룻밤 동안 담갔다 그 물을 씻으며 몸을 씻고 나서는 煮餅을 먹는데 鹽豉로 맛을 내지는 않는다.

4. 고찰

본 條는 百合病이 오래되어 渴症으로 변한 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논하였다. 百合病이 한 달 이상 되도록 낫지 않고 口渴이 나타나는 것은 陰虛內熱이 비교적 심한 것을 뜻하며 肺의 津液이 輸布되지 않고 胃의 津液이 이미 손상된 것이므로 口渴이 멈추지 않는다. “一月不解”는 대략적인 말로서 百合病을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앓아서 낫지 않은 것이며; “變成渴者”는 원래의 증상이 있는 외에도 口渴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는 百合地黃湯 한 가지만 쓰면 藥力이 不足하여 큰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內服하는 湯藥을 기초로 하고 다시 百合洗方으로 外治하여 內外를 모두 施治하여 함께 養陰清熱의 효과를 가져온다. 條文 중에 內服方藥을 말하지 않은 것은 省略된 것이다.

5. 방해

百合을 담근 물에 몸을 씻는 것은 肺가 皮毛와 合하는 것을 취한 것이니 外를 씻어 內로 통하게 하여 肺陰을 濡養하고 泄熱潤燥의 효과를 취한 것이다. 몸을 씻은 뒤에 煮餅을 먹는데 煮餅을 만드는 小麥粉이 益氣生津하여 除熱止渴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鹽豉로 飲食을 調理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鹹味가 津液을 消耗시켜 渴症을 增加시키기 때문이다. 飲食의 調節이 本病의 治療와 調理에 좋아하는 바를 가까이하고 싫어하는 바를 멀리하는 정신을 실현하였다.

6. 임상응용

胡<sup>48)</sup>는 本方을 燥渴을 치료하는데 응용하였다.

제 7 절

1. 원문

百合病에 渴不差(1)者는 用後方(1)(2)主之라 括萹牡蠣散方 括萹根 牡蠣(煨2)(3) 等分 右爲細末하야 飲服方寸匕(4)라 日三服이라

2. 교감

- 1) 用後方: 『醫統』·鄧崇文齋本에는 모두 “括萹牡蠣散”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옳다.
- 2) 煨 等分: 李本에는 “熬 等分”으로 되어 있다.

3. 주석

- (1) 差: 病癒, 병나을 차
- (2) 煨: 藥물을 불 속에 넣어서 볶어질 때까지 태우거나 耐火容器 속에 넣어서 간접적으로 불로 燒成하고, 그 질을 脆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煨: 鍛同, 쇠붙일 단)
- (3) 後方: 括萹牡蠣散을 가리킨다.
- (4) 方寸匕:匕는 지금의 숟가락이다. 方寸匕는 고대에 藥量을 재는 器具이다. 一方寸匕의 量은 一寸 六面體(漢의 容量)이다. 重量은 약에 따라 다르다.

3. 국역

百合病에 渴症이 낫지 않는 사람은 위의 處方을 써서 主治한다. 括萹牡蠣散方 括萹根 牡蠣(불로 달군 것, 括萹根과 牡蠣의 量을 같게 한다.) 위의 것을 곱게 가루로 내어 方寸匕만큼 飲服한다.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4. 고찰

본 條는 위의 條文을 이어 百合病의 渴症이 낫지 않는 것의 治法을 논하였다. “百合病 一月不解 變成渴者”한 것을 비록 百合地黃湯을 內服하고 百合洗方을 外用하였으나 口渴이 낫지 않는 것은 熱이 盛하여 津液의 損傷이 비교적 重한 것이기 때문에 앞 條의 治法은 病이 重한데 藥은 輕微한 것이어서 效果를 보기 어려우므로 원래의 百合地黃湯에 다시 括萹牡蠣散을 加하여 清熱生津의 效果를 增加시킨 것이다.

5. 방해

括萹根(天花粉)은 生津止渴하여 肺胃의 熱을 식힐 수 있고 牡蠣는 味는 鹹하고 性은 寒하고 質은 重하여 虛熱을 내려 위로 떠올라 津液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다. 本方은 앞의 百合地黃湯과 合方하여 津液을 生成하여 清熱하여 口渴을 낮게 한다.

제 8 절

1. 원문

百合病이 變發熱者(1)는(一作發寒熱) 百合滑石散主之라 百合滑石散方 百合(一兩炙(1)) 滑石三兩 右爲散하야 飲服方寸匕호대 日三服이라 當微(2)利者는 止服이면 熱則除라

2. 교감

- 1) 百合病 變發熱者: 『外臺·卷二』에는 “療百合病變發熱者方”으로 되어 있다.

3. 주석

- (1) 炙: 지금의 蜜炙가 아니라 炒·烘·晒를 하여 볶아서 가루로 만들기 쉽게 하는 것이다.(藥材와 補助材를 동시에 넣고 熱을 가하여 補助材를 藥材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으로 ‘合炒’라고도 한다.)
- (2) 微: 通也, 통할 철.

4. 국역

百合病이 變하여 發熱이 된 사람은 (‘發寒熱’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百合滑石散으로 主治한다. 百合滑石散方 百合 一兩(炙) 滑石 三兩 위의 藥물을 가루로 내어 方寸匕만큼 飲服한다. 하루에 세 번 복용하는데 泄瀉를 하는 사람은 복용을 그치면 熱이 없어진다.

5. 고찰

本 條는 百合病이 發熱로 變한 것의 治法을 논하였다. 백합병에 “如寒無寒 如熱無熱”의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진짜 發熱은 결코 없다. 지금의 “變發熱者”는 本病이 오래도록 낫지 않고 內熱이 오래도록 鬱滯되어 밖으로 肌表에 도달한 것이다. 治法은 清潤心肺하고 泄熱利尿하는 것이 마땅하고 百合滑石散을 사용한다.

6. 방해

百合을 主藥으로 삼아 清潤心肺하고 滑石을 배합하여 清熱利小便하여 陰虛가 恢復되게 하여 表裏의 熱을 除去한다. 처방의 끝에 “當微利者 止服”이라 하였는데 百合病은 陰虛하여 清利하는 것을 過用할 수 없으므로 약을 복용한 뒤에 小便이 暢利하여 熱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곧바로 服藥을 그친다.

7. 임상응용

본 處方을 林<sup>49)</sup>은 生地黃·玉竹·石決明·薏苡仁 등을 加味하여 百合病을 치료하였고, 譚<sup>50)</sup>은 知母·滑石·天花粉·牡蠣 등을 加味하여 精神神經症(psychoneurosis)을 치료하였다.

제 9 절

1. 원문

百合病이 見於陰(1)者는 以陽法救之(2)하고 見於陽(3)者는 以陰法救之(4)니 見陽攻陰(5)하고 復發其汗하면 此爲逆(1)(6)이오 見陰攻陽(7)하고 乃復下之면 此亦爲逆(2)이라

2. 교감

- 1) 此爲逆: 『脈經·卷八』에는 “此爲逆 其病難治”로 되어 있다.

48) 胡谷塘 等: 胡翹武選用經方治驗四則, 中國醫藥學報, 1987, vol4, p39

49) 林善星: 二例百合病治驗簡介, 福建中醫醫藥, vol12, p14  
50) 譚日強: 金匱要略淺述, 人民衛生出版社, 1981, p56



2) 원문이 『千金·卷十』에는 “論曰 百合病見在於陰而攻其陽 則陰不得解也 復發其汗 爲逆也 見在於陽而攻其陰 則陽不得解也 復下之 其病不愈”로, 『外臺·卷二』에 『小品』을 인용한 것에는 “凡百合病見於陰而以陽法攻之 其陰不得解也 復發其汗 此爲逆 其病難治 見於陽而以陰法攻之 其陽不解也 復下之 其病不愈”로 되어 있다.

### 3. 주석

- (1) 見於陰: 裏證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 (2) 陽法救之: 救는 治의 뜻이니, 表를 따라 治療하는 方法을 가리킨다.
- (3) 見於陽: 表證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 (4) 陰法救之: 裏를 따라 治療하는 方法을 가리킨다.
- (5) 攻陰: 攻은 治療의 뜻이니 攻下法으로 잘못 치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 (6) 爲逆: 治法과 病情이 서로 違背되는 것을 뜻한다.
- (7) 攻陽: 汗法으로 잘못 치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 4. 국역

百合病에 裏證이 나타나는 사람은 表를 따라 治療하고, 表證이 나타나는 사람은 裏를 따라 치료하니 表證이 나타나는데 攻下法으로 잘못 치료하고 다시 發汗시키면 이는 逆이 되고, 裏證이 나타나는데 發汗法으로 잘못 치료하고 다시 瀉下시키면 이 또한 하고 乃復下之면 逆이 된다.

### 5. 고찰

本條는 百合病의 治療原則을 논하였다. 條文의 “陰”과 “陽”의 意味에 대한 제가들의 주장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陰·陽은 證候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徐彬이 『金匱要略論注』에 “病이 瀉下한 뒤와 渴症으로 변한 것이 ‘見於陰也’이다. … 病이 發汗·吐法을 사용한 것과 증상이 百合病의 증상과 같고 變하여 發熱이 된 것이 ‘見於陽也’이다.”<sup>51)</sup>고 말한 바와 같다. 이른바 “陽法”은 百合滑石散·栝藹牡蠣散과 같은 것이고, 이른바 “陰法”은 百合知母湯·百合鷄子湯과 같은 것이다. 둘째, 陰·陽은 證候의 表와 裏를 分別하여 가리키는 것으로서 “陽法”과 “陰法”은 “從表治”와 “從裏治”를 가리킨다. 唐宗海가 『金匱要略淺注補正』에 “이른바 陰陽은 대부분 表裏를 가리켜 말한다. … ‘見於陰’은 上文에 渴症이 된 것으로 病이 裏部에 있는 것이니 陽法으로써 治療하니 洗方과 같은 것이 表를 따라 치료하는 것이며; ‘見於陽’은 上文에 發熱이 된 것으로 病이 表에 있는 것이니 陰法으로써 治療하니 滑石散과 같은 것이 裏를 따라 治療하는 것이다.”<sup>52)</sup>라 한 것과 같다. 셋째, 陰·陽은 陽虛陰盛과 陰虛陽亢을 구분한 것으로서 魏荔澗은 『金匱要略方論本義』에 “百合病이 陰에 나타나는 것은 陽은 不足하고 陰은 有餘한 것이다. … 陽에

나타나는 것은 陰은 不足하고 陽은 有餘한 것이다.”<sup>53)</sup>라 하였으니. “陽法”은 陽의 不足을 陰과 平衡되게 하는(使陽之不足 與陰相濟) 방법이고; “陰法”은 “陰의 不足을 陽과 平衡(使陰之不足與陽相濟)되게 하는 방법이다. 百合病의 病機는 주로 陰虛內熱이므로 치료는 모두 養陰清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陰法이다.

그러나 陰陽은 互根하니 陰虛하면 또한 陽을 損傷시킬 수 있으므로 養陽의 法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陽法이다. 원문의 앞의 두 구절도 모두 이것을 말하였다. 만약 陰虛하여 陽熱의 證이 나타나서 이것을 實熱로 잘못 알고서 攻裏를 하면 陰이 더욱 손상되어 그 證이 낮지 않고 다시 發汗하면 陰이 손상되고 陽이 모손되는 “此爲逆”이 되며; 만약 陰의 損傷이 陽에 미쳐서 陽虛의 證이 나타났는데 잘못 發汗散寒하면 陽氣가 공격을 받아 陽虛의 證이 나타나 더욱 손상되고 다시 下法을 사용하면 陽氣와 陰液이 모두 그 害를 받아 “此亦爲逆”이 된다. 臨床施治함에 다만 病機를 救하고 陰陽을 協助하면 병은 스스로 낫는다.

## 결론

이상을 살펴본 결과 百合病의 原因은 일반적으로 傷寒外感熱病으로 일어나며, 情志不遂와 誤治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으며, 百合病은 현대의 精神神經症(psychoneurosis)에 해당되며, 鬱證·不寐·臆躁와 類似하나 차이가 있다.

百合病의 명칭은 百合病을 치료하는 主藥인 百合의 명칭으로부터 由來된 것으로 思料된다. 百合病의 病機는 心肺陰虛內熱로 인한 것이다. 百合病의 基本治法은 清熱養陰이며 處方은 百合地黃湯이며; 百合病을 汗·吐·下하여 誤治한 경우에는 百合知母湯·百合鷄子湯·百合滑石代赭湯을 사용하며; 百合病이 오래되어 口渴로 變症이 된 경우에는 百合洗方·百合滑石散·栝藹牡蠣散을 사용한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3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참고문헌

1. 張仲景: 宋祠部郎中林億校正 明虞山人趙開美校刊 金匱要略方論, 成輔社, 서울, 1985.
2. 魏荔澗: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3. 尤怡: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4.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5. 陳念祖: 金匱要略淺註, 綜合出版社, 台南, 1990.
6.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 力行書局有限公司, 臺北, 1994.

51) 徐彬: 病在下後及變渴은 所謂見於陰也라 … 病在汗後及吐後하고 及病形如初하고 及變發熱은 皆所謂見於陽也라

52) 唐宗海: 所謂陰陽은 多指表裏而言이라 … 見於陰은 如上文變成渴而在裏也니 以陽法救之니 如洗方從表治之是也 見於陽은 如上文變成發熱在表也니 以陰法救之니 如滑石散從裏治之是라

53) 魏荔澗: 百合病이 見於陰者는 陽不足而陰有餘也오 … 見於陽者는 陰不足而陽有餘也라

7. 曹家達: 金匱要略發微, 志遠書局, 臺北, 2003.
8.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10.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11. 王叔和: 影宋版 脈經, 東洋醫學研究院, 大板, 1981.
12. 巢元方 著·南京中醫學院編: 諸病源候論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13. 孫思邈 著·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1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5.
15. 王水: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16. 王燾: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17. 吳大真 總編: 中醫辭海·上,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18. 王懷隱 等: 太平聖惠方, 翰成社, 서울, 1978.
19.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南山堂, 서울, 1987.
20. 朱橚 撰: 普濟方, 大星文化社, 서울, 1995.
21. 趙佶: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22. 王肯堂: 證治準繩,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23. 中醫辭海·上: 吳大真 總編,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